

# “달라진 남북 태권도 하나로 통일하고 평화 의식 불어넣겠다”

## 인터뷰 본보와 행사 공동 준비 GCS 인터내셔널 조정원 총재

조정원(72) GCS 인터내셔널(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총재 겸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는 직함에서 드러나듯 사회봉사와 태권도로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다고 있다. 이런 조 총재를 지난 30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만났다.

### 한국의 라이온스클럽 꿈꾸는 GCS 인터내셔널

GCS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평화와 사회봉사를 위해 1979년 조 총재의 선친인 조영식 박사가 설립했다. 유엔에 등록된 비정부단체(NGO)다. 81년 한국이 아직 유엔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유엔에 ‘세계 평화의 날’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단체이기도 하며 현재 44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조 총재는 “세계적인 사회봉사 단체인 라이온스클럽처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회봉사단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조 총재는 최근에는 네팔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태권도 보급과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총재는 “네팔에선 고아와 이주민을 위한 의료·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며 “태권도를 통한 저개발국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국제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총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회원국을 100여 개국으로 늘리는 등 GCS 인터내셔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를 길다’를 주제로 1주일간 그림 전시회도 열린다. 축제 당일에는 철책선 9km 구간을 따라 그림을 감상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행사도 진행된다.

조 총재는 “DMZ 철책선에서 어린이 그림 전시도 하고 9km 구간 평화 걷기 대회 등을 하면 평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가 1회인데 이번 경험을 살려서 매년 열리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S 인터내셔널은 이번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북한 어린이 결핵 퇴치 및 저개발 국가 태권도 보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도 맡아 국내외서 봉사활동 적극 펼쳐 “을 경험 쌓아 행사 발전시킬 것”

조 총재는 달라진 남북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총재는 “남북 태권도가 품새와 겨루기 방식이 많이 다르다”며 “원 월드 원 태권도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세계 평화 남북 교류 앞장서는 태권도

조 총재는 태권도가 전 세계 난민·기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난민의 스포츠 참여의 길을 태권도가 열었다고 했다. 상징적으로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난민팀 구성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박애재단 창설에도 태권도가 동기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를 통해 난민·기아들이 힘을 얻는 것에 엄청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요르단 아즈락 난민 캠프에 태권도 전용 교육 건물인 태권도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조 총재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인성교육을 했다”며 “먼지 낀 운동장도 인조 잔디로 덮어주니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이곳에서 수련하는 학생이 현재 400명이 넘었다는 조 총재는 “태권도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흐뭇해했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 교류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태권도는 한반도 상황과 똑같이 남한이 주도하는 WT와 북한이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나뉘어 있다. 그는 이렇게 나뉘어진 태권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7년에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WT와 ITF가 합동공연을 여는 데 힘을 쏟았다. 조 총재는 “당시 한반도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그렇지만 무주 합동공연에 이어 내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태권도 합동공연을 하는 것이 어땠겠느냐고 북한에 제의해 이뤄졌다”고 회고했다. 조 총재는 “그것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초가 됐다. 이후에 북한도 약속대로 WT 시범단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조 총재는 달라진 남북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총재는 “남북 태권도가 품새와 겨루기 방식이 많이 다르다”며 “원 월드 원 태권도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총재는 끝으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조 총재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는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조정원 GCS 인터내셔널(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총재 겸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 총재는 사회봉사와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인류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현규 기자

◆약력 △1947년 서울 출생 △서울고, 교수 △제10, 11대 경희대 총장 △세경희대 경제학과, 벨기에 루벤대 국제정치학 박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회고문 △GCS 인터내셔널 총재

(광고)

대한한의사협회광고 심의번호 제140418-중-23270호

# 비염, 축농증, 중이염, 외이도염

## 한방외용약으로 치료 효과 높여...

### ‘비강삽입약’ 콧속 삽입, 농, 노폐물 제거



백동한의원 원장 박계원

백동한의원에서 코 질환을 위해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비강삽입약’은 콧속에 삽입하면 약물이 직접 코 점막에 작용

해서 비염, 축농증 등 코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방 외용약이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콧속에 삽입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콧속에 축적된 농이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코의 기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맑거나 누런 콧물, 농이 있는 콧물, 목뒤로 넘어가는 코가래, 재채기, 눈이나 코가 가려운 증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방하여 치료하게 된다.

바르는 연고와 뿌리는 액은 소아 ~ 고연령도 잘 사용 감기 증세에도 내복약 대신사용 코 안에 바르는 한방 외용연고

는 비염 증상을 치료하면서 코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여 코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방외용약이다. 이 한방연고는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비강삽입약’보다는 가볍게 분비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는 한방연고가 있는가 하면, 코건조증과 같이 건조감이 심해지면서 코안이 바싹 메말라 있고 코딱지가 많이 생기며 코피가 묻어나거나 코안이 쓰라리는 등 건조성 증상에 쓰이는 한방연고도 있다.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나 고령자들은 삽입하는 한방 외용약이나 내복약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자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코 점막을 튼튼히 해주는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방연고가 주가 되어 치료가 이루어진다. 특히 감기증세가 나타날 때는

연고와 뿌리는 약을 복용약과 같이 사용해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면역력과 호흡기 보강에 도움 되는 한방 내복약

한약재를 배합하여 소아부터 고연령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한 한방 내복약은 코 점막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며 약해진 면역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다. ‘황기, 갈근, 맥문동’ 등 18가지 정도의 한약재를 달인 한방 내복약은 호흡기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폐의 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호흡기에 쌓인 노폐물, 염다. 한방 내복약은 병중의 깊이와 종류에 따라 단계별 처방이

들어가며 체력개선의 효과도 있어 36개월 이상 소아부터 고연령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재발 높은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외이도염 귀에 바르는 한방 점이약으로 치료

소아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삼출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 외이도염은 만성비염이나 축농증 등 코 질환과 연관이 많으며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하다. 귀에 바르는 한방 점이약은 청열해독소종(淸熱解毒消腫)의 효과를 가진 한방 외용약으로 중이염으로 인해 농이 많이 나오거나 외이도염으로 인해 귀가 가렵고 진물이 흐르는 경우 농을 배출하고 가려움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 삼출액이 고막 안에 많이 고여 있는 상황에서 삼출액이 잘 배출 되도록 도와준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1일 1~2회 정도 귀에 점적하거나 발라서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귀 증상과 더불어 비염 증상이 동반되거나 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코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백동한의원 (구. 상림한의원)

02)3443-0098

2호선 낙성대역 1번출구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방문 전 예약 부탁드립니다.